

카쇼기 사태,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 ▶ 사우디 언론인 실종 사태 두고 美-사우디 첨예한 대립. 국제 경제/정치 측면에서 이미 굵직한 대응 나오고 있고 결국 왕세자 MBS의 NEOM까지 건드렸음. 양 국 관계 재정립 상황까지 이어진다면 빅 이슈 될 것

자말 카쇼기 실종 사태 두고 미국-사우디 첨예한 대립 양상

Saudi Arabia says will retaliate against any sanctions over Khashoggi case

Saudi Arabia on Sunday warned against threats to punish it over last week's disappearance of journalist Jamal Khashoggi, as European leaders piled on pressure and two more U.S. executives scrapped plans to attend a Saudi investor conference. (중략)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threatened "severe punishment" if it turns out Khashoggi was killed in the consulate, though he said Washington would be "punishing" itself if it halted military sales to Riyadh. (하략)

자료 : Yahoo(2018년 10월 15일), SK증권

금융시장, 유가, 글로벌 투자에 지대한 영향 미칠 수 있음

언론인 암살 의혹에... 기업·언론들 '사우디 보이콧'

외국 투자자와 기업인이 사우디아라비아 보이콧(참여거부)에 나섰다. 사우디 왕실이 언론인 자말 카쇼기 실종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사우디가 주도하는 투자 건이나 국책 사업 참여를 미루겠다는 것이다. (중략) 리처드 브랜슨 영국 버진그룹 회장은 앞서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카쇼기 실종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우디 관광 프로젝트 이사로서의 업무를 중단하겠다" (중략) 미국 경영컨설팅기업인 하버그룹은 지난 11일 사우디 왕실과 월 8만달러(9000만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자료 : 머니투데이(2018년 10월 12일), SK증권

-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 이상 → 매수 / -15% ~ 15% → 중립 / -15% 미만 → 매도

- 지난 주말 매우 흥미로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우방을 표방하던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사우디에게 "가혹한 처벌"을 가하겠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인데요
- 이유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터키에서 실종된 사우디의 언론인 자말 카쇼기(Jamal Khashoggi)가 만약 살해된 것이고, 그 배후가 사우디로 밝혀진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였습니다
- 카쇼기는 애초 현 사우디의 빈살만왕조에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펼쳐온 자발적 망명(self-exile) 인사이기 때문에 개연성은 충분하죠
- 이에 대한 "Mr. Everything"이라 불리는 사우디 왕세자 Mohammed bin Salman(이하 MBS)의 대응도 강경합니다. 어떤 제재라도 나온다면 곧바로 보복(retaliate)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경제적 파급효과는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사우디 주식시장이 주말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했고, 유가 급등 가능성도 점쳐지죠. 뿐만 아니라 MBS의 최대 프로젝트인 NEOM 투자 및 자문에서도 많은 글로벌 그룹들이 잠정중단을 선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 제 생각엔 다른 건 몰라도 트럼프로서도 MBS의 NEOM을 건드린 건 신중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자칫 정치적으로 1970년대 이후 굳건한 우방이자 세계 경제의 큰 두 축이었던 미국(공화당)-사우디 관계 재정립까지 이어질 수 있는 빅 이슈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 일단 미국이 대외적으로 中, 러, 이란 등과 대립관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우디마저 멀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무기수출 때문에 제재까진 안 될 것이란 미국 내 분석도 다수구요

- 하지만 이미 부임 이후 국제적으로 호전적(好戰的) 입장을 고수 중인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 어느 쪽이든 선불리 예단할 일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앞으로 눈 여겨 볼 일이겠네요

